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Better Better PEOPLE WORLD

www.khdi.or.kr



표지인물 홍순영 한국외교협회 고문, 前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전 장관은 50년이 넘는 외교통상부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30년 넘게 외교현장에서 그 소임을 다해온 인물로 직언을 서슴치 않는 성품과 리더의 자질까지 갖추고 있어 국민의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 능통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연구원에서 발족한 차이나클럽 초대회장에 선임되어 포부를 다지고 있는 홍 전 장관을 만나 차이나클럽의 향후 계획과 대북문제와 관련한 한미관계의 방향, 그리고 외교현장에서 겪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관련기사10~13면〉

2004 February 2

- 3 머릿글**
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
- 4 월프로그램**
2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 10 자랑스런 회원**
홍순영 한국외교협회 고문, 前 외교통상부 장관
- 14 나의 경영이야기**
김석기 관동실업(주) 사장
- 16 지자체 특강**
최상호 국민정신연구소 소장
- 18 원로회원을 찾아서**
송병순 (주)중원개발 회장
- 19 회원칼럼**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
- 20 세상을 보는 눈**
박영식 세계기업문제연구소 소장
- 22 회원&연구원소식**
- 26 리더십이야기**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28 발행인편지**
- 29 창립 29주년 기념사**
이원설 한국기독교교회연맹이사장
- 30 이시형 칼럼**





가자, 행복의 나라로!

당신이 행복을 찾아갈 때-
그 길에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풍요와 고객의 평생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금융,

뉴욕증시 상장을 통해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 도약합니다.

365일 웃음이 가득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 곁에 언제나 우리금융이 함께합니다.

평생행복 네트워크



가치창조기업 (The Value Enterprise)

최 근 Business Week지에서 2003년 세계주요기업의 실적에 따라 최우수 기업인과 최악의 기업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3M사의 제임스 맥너니(James McNerney)회장은 하버드 출신으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시장에 대한 매출액을 20%이상 신장하여 사세를 확장시켰다. 스타벅스의 오리인 스미스(Orin Smith)회장은 매출과 순익에서 3년 연속 기록적인 실적을 올려 세계 커피제인을 석권했다. 그리고 야후의 테리 서멜(Terry Semel)회장은 지난 한해 470%의 이익증대와 함께 57%의 매출신장을 기록하여 야후주가를 상승시켰다. 삼성전자의 윤종영 부회장은 37년간의 삼성경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메모리칩의 세계시장을 장악하였고, 휴대 전화기는 모토로라를 제치고 상위에 올랐다.

이와 반대로 최악의 기업인으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저겐 쉬렘프(Jugen Schrempp)회장은 3억 달러의 기업손실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 소니의 노부유기 이데이(Nobuyuki Idei)사장은 10억 달러의 기업손실을 내고 2만 명의 종업원 감원을 계획하는 소니 충격을 가져 왔다. 보잉항공사의 필 컨디트(Phil Condit)회장은 각종 스캔들을 일으키고 중요개발서류를 도난당하는 등 기업이미지와 경쟁력을 실추시켰다고 했다.

투자과 경영인의 평가가 일목요연하게 발표되는 지구촌기업사회

이제 글로벌 시장은 종전의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뿐만 아니라 투자와 경영인의 평가가 일목요연하게 발표되는 지구촌기업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탁월한 경영인이 없이는 다국적기업의 경쟁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발전사를 보면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 조류에 편승하여 기업전환을 이룬 경영인은 살아남고, 과거 농경시대의 전통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산업과 기업은 낙오되었다. 오늘날 IT혁명시대에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를 타고 상승한 기업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도약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혁신을 통하여 창의와 재무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룬 경영인을 최우수기업인으로 선정했다고 비즈니스 위크지는 발표했다. 이러한 성공사례 배경에는 기업운영의 정신으로 가치창조기업의 이념이 깔려있다고 본다. 가치창조의 경영이라고 하는 VBM(Value Based Management)은 주주에게는 높은 배당, 종업원에게는 좋은 급여와 복리후생, 고객에게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만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사고를 수행한 기업인이다.

우리사회는 개발경제를 해오는 동안 1977년 소득 1천 달러에서 1995년 1만 달러로 10배의 약진을 이룬 고도성장시대를 마감하고, 그 이후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만 명의 실업, 1,606억 달러의 외채대국, GDP 600조원에 버금가는 국내 채무로 210조의 공적자금과 400조원에 달하는 카드 및 가계부채는 우리의 만성적인 부실재정이 되었다.



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

새로운 가치창조기업인들이 다수 등장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대대적인 변화의 홍역을 겪는 격동기에 처해있다. 골수에 젖은 정치부패, 최저 출산과 최고 이혼율로 인구위기를 맞은 사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는 새해 벽두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 2의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개혁바람은 기업사회에도 예외는 아니다. 급속한 글로벌 사회의 대세에 과감히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창조기업인들이 다수 등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업 엘리트가 국가재무구조의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이를 우리의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성인의 사명이며 인간개발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人間



2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 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립 29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북한 민주화의 기본문제

1337회 2월 5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종일관 민주주의 원칙과 방법을 견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정의로운 二難의 생존방식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생존자체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핵이다. 주권의 주인인 북한인민과 인민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 집단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안은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할 인민의 자주권을 놓고 독재자들과 흥정하는 비민주적인 태도이다.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인민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지 외부 사람들이 독재자들과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는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선생은 지난 1997년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을 바친 북한 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몸을 옮겼다. 여기서 '망명'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은 남쪽과 북쪽을 모두 조국으로 여기고 살아온 노철학자의 신념을 존중하는 뜻에서이다. 한 나라 안에서 북쪽의 학자가 남쪽에서 해야 할 특별한 민족적 과제가 있어 넘어 왔다면 그의 신분변화가 '망명'이 아니라는 고집스러움에 대하여 수긍되는 바 없지 않다.

북핵문제로 대표되는 북한문제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최대의 정치적 현안이다. 6자 회담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력한 돌파구'로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그 문제에 관하여 가장 권위 있는 견해를 가진 황장엽 선생을 초청하여 고견을 듣는다.

<주제 발표>



황 장 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전 조선노동당비서

- ▲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철학박사(1953)
 - ▲ 조선노동당 입당(1946)
 - ▲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철학박사)(1965)
 - ▲ 최고인민회의 의장(1972-83)
 - ▲ 조선노동당 과학교육담당 비서(1979)
 - ▲ 노동당 비서국 국제담당 비서(1985)
 - ▲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1993)
 - ▲ 국제주체재단 이사장(1995)
 - ▲ 대한민국으로 망명(1997)
 - ▲ (사)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1999-현)
 - ▲ 미주 탈북난민 인권보호협회 상임고문(2002-현)
 - ▲ 전주대 석좌교수(2003-현)
- <저서>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개인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민족의 생명 외

<패널 토의>



조 갑 제
조선일보 대기자,
월간조선 대표이사



신 일 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학원장



김 영 희
중앙일보
상임고문 대기자



장 상
이화여대 교수, 전 총장,
전 국무총리서리



이 중 훈
동아시아경제포럼
공동대표, 전 중앙대
총장



박정자의 연극이야기

1338회 2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박정자 연극인

평생을 한 가지에 몰바쳐 몰입하여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분야에서 '인자', '명인', '거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 무서운 끈기와 집중력,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극배우 박정자씨는 한국 연극계의 거장이라는 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예순세 살의 여배우 박정자씨는 우리 연극계에서 몇 안 되는 영원한 현역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40여 년 동안의 연기생활에서 '위기의 여자',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에 이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연극 '19 그리고 80'을 공연했다. 이 연극은 에이즈로 38살 나이에 요절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 콜린히긴즈의 '헤롤드와 모드'를 변안한 것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채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꿈꾸는 19살 청년 헤롤드가 자유와 파격을 사랑하는 80살의 매력적인 할머니를 만나면서 삶의 가치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배우로서 제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80이 된다고 해서 만월처럼 모든 것이 다 딱 채워지지는 않을 테지요. 하지만 나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영글어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젊은 열기를 뛰어넘을 열정이 담겨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만삭의 몸으로도 무대에 섰고, 시어머니의 부음을 듣고도 공연을 강행했던, 오직 연극을 위해 살며 연극배우로만 존재하기를 원하는 연극배우 박정자씨를 초빙하여 연극을 통해 보여준 그의 인생관과 열정,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이화여대 신문학 수료(1963)
- ▲ 동아방송 성우1기(1963)
- ▲ 동인극장에서 "악령"으로 연극 데뷔(1964)
- ▲ 극단 <자유> 창립단원(1966)
- ▲ 개인후원회 '꽃봉지회' 결성(1991-현)
- ▲ 이화여대 동창 연극인회 초대 부회장(1995)
- ▲ 한국연극배우협회 제3대 부회장(1996)
- ▲ 문화비전2000위원회 위원(1997)
- ▲ 한국영상자료원 이사(2002-현)
- ▲ 한국연극협회 회원(현)
- <상훈> 백상예술대상(4회), 동아연극상(3회), MBC 명예의 전당(무대예술부문) 외
- <저서> 사람아 그건 운명이야, 연극배우 박정자, 애들이 무대에 서면 신이 난단다 외
- <작품> 뮤지컬-년세스, 지붕위의 바이올린 외, 연극-에쿠우스, 19 그리고 80,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외



한중관계의 미래와 역사전쟁(고구려사)의 해석

1339회 2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김산호 민족사학자

최근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신들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東北工程'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정부나 학계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만주땅은 우리 것'이란 차원을 넘어 보다 장기적·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된다.

우리는 어릴적부터 우리의 영토를 작은 토끼 모양의 금수강산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안 중국인과 일본인의 눈으로 그려진 축수, 왜곡된 민족사로 우리 민족은 유순하고 착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호랑이'의 후손으로 이는 곧 동아시아의 고대사가 중국의 중화족과 배달민족인 동이족간의 패권 다툼의 역사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를 풍미했던 김산호 화백이 우연한 기회에 한국사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10여 년 간 우리 민족사의 현장인 만주 곳곳을 답사하는 한편 산해경, 중국역사편람, 한단고기, 일본서기 등의 사료 수백 종을 연구한 끝에 '대조선제국사(大朝鮮帝國史)'라는 결과물을 내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오랜 작업기간을 거치는 동안 김화백은 중국의 공안에 불합허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한·중간의 고대사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지금의 40, 50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SF만화 '라이파이'의 작가로서 한국만화 명예의 전당 제1호로 기록된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뒤틀린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여생을 건 재야사학자 김산호 화백을 모시고 한민족의 고대사를 보는 새로운 방법과 한·중간의 고대사 전쟁에 관한 해석을 들어보기로 한다.

- ▲ 서라벌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 Greenwich Art School, Commercial Art 전공
- ▲ <만화세계>에 극화 '황혼에 빛난 별' 연재로 데뷔(1958)
- ▲ 1965년 渡美
- ▲ 뉴욕 Off Broadway 예술감독
- ▲ 뉴욕 Village Times 예술감독
- ▲ Charlton Comics Group 전속작가
- ▲ Iron Horse Publishing Company 발행인
- <작품> 라이파이, 청동마왕, THE PROMISE, 대주신제국사, CHEYENNE KID, HOUSE OF YANG, GHOSTLY TALES 외 300여 편
- <전시회> 한국 105대 천황전 - 단군의 힘, 통일의 그날까지(2002)



이공계 기피현상이 보여준 한국과학기술의 현실과 세계과학기술 전쟁의 대응책

1340회 2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저하 및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거의 '이공계 엑스터스'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과학기술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그 동안 국가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발표한 이공계 해외유학생 지원책, 이공계 신입생 장학금 지원, 과학기술인 공제회 제도 신설 등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과학 입국과 과학 대중화운동이라는 구호는 되풀이되었고 매번 '립 서비스'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근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문화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참여정부도 출범하면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술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세계과학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체신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동아일보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 온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을 초빙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현실과 향후 대응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 ▲ 육군사관학교 18기(1962)
- ▲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1966)
- ▲ 美 뉴욕주립대 전기공학 석·박사(1970-72)
- ▲ 美 뉴욕주립대 명예인문학 박사(1997)
- ▲ 원광대 명예경영학 박사(1999)
- ▲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1966-79)
- ▲ 제36대 체신부 장관(1987-88)
- ▲ 美 뉴욕주립대 석학교수(1989-현)
- ▲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정부대표 겸 조직위원장(1989-93)
- ▲ 한국야구위원회 제6대 총재(1993)
- ▲ 동아일보 발행인, 사장, 회장(1996-2001)
- ▲ 제10대 이주대 총장(2002-03)
- ▲ 미래포럼 공동대표(2002-현)
- <상훈> 제1회 전자대상, 창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외
- <저서> 전기전자공학, 레이저 응용(공저), 정보화사회 그 천의 얼굴 외



2004년 1월 6일 신년하례회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2004년도 세계정세와 한반도 안보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세 계정세는 크게 네 가지 큰 축에서 이해된다. 우선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다. 리비아는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남은 곳은 북한과 이란 두 지역이다.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갈등문제는 최근에 관계가 개선되면서 나아지고는 있는 상황이다. 국제 테러리즘과 동시다발적 위협도 변수다. 국제테러리즘은 이슬람테러리즘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전쟁이 될 것 같다. 전체 13억 이슬람 인구 중에서 원리주의자를 10%만 잡는다고 해도 1억 3천명이고, 원리주의자 중에서 과격파 원리주의자를 10%만 잡아도 1,300만 명이다. 자살테러를 하는 순교자를 10%만 잡더라도 130만 명이다. 결국 미국이 아무리 이슬람권에 대해서 대 테러전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130만 명 이상의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전 세계적 차원에서 테러위험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상당히 중요한 안보현안이다.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과 중동지역의 구조적 불안정도 확인할 문제다. 미국이 잘 다루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라크는 상당히 어려운 국가다. 미국이 강경 대응책을 쓰면 쓸수록 반미정서가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역에 확산되기 쉽다.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영토분쟁, 종족 분쟁, 종교분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미국이 강경하게 나갈수록 테러위험은 증가

미국의 전략적 포석에 따라 세계정세의 판도는 많이 달라진다. 만약 미국이 지난 일년 반 동안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부시독트린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세계정세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부시독트린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안보는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전쟁에 역점을 두었지만 9.11사태 이후에는 대량살상무기와 국제테러리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현실주의로 가든 자유주의로 가든 기본적으로 가치개입을 최소화시켜왔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서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외교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악의 축', '불량국가' 등 미국적 가치기준에 있어서 한 국가의 도덕적 위상을 판단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도덕적 절대주의에 의해서 선한 국가와 악한 국가를 나누고 악한 국가에 대한 응징과 봉쇄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국제정세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본다. 다음으로 큰 구성요소는 패권적 일방주의다. 패권적 일방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인 일방주의다. 미국이 부시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제적 형태가 UN이나 다자주의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외교정책을 펴는 것보다 미국 한 나라의 외교정책의 기본 틀과 미국의 국가이익에 의존해서 외교정책을 펴온 경향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침공이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미국이 대외적인 일방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나 국제테러리

즘과 같이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안보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주의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부적 비판이 많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UN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미국의 국가이익에 의해서 대외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패권주의적인 일방주의에 해당한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세계정세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공세적 현실주의도 문제다. 공세적 현실주의는 네 가지 항목을 갖고 있다. 첫째, 선제공격론이다. 어느 국가나 어느 테러집단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고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해칠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 상대방이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먼저 가서 미국의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 응징을 가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술핵의 사용가능성이다. 원래 핵무기는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기본적으로 핵 억제력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 시리아, 이란, 리비아, 이라크, 중국, 러시아 등 7개 국가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술핵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미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승인 해줬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통적 주권개념의 거부다. 아무리 약한 국가라고 해도 다른 국가가 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권 신성불가침론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인데 부시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위 국제적 협약과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들 국가의 주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북한에 주는 함의가 상당히 크다. 마지막으로 국방력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부시독트린의 공세적 현실주의의 한 폭이다. 부시행 정부가 들어와서는 국방예산이 향후 4년까지 다 합쳐서 총 7년 동안 4,000억 달러가 증가되는 것이니까 엄청난 국방력 신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난 9.11사태 이후에 미국이 유지해왔던 부시독트린에 의해서 국방과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세계정세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11월에 있을 대선이다.

중국-대만 氣 싸움, 동북아에 잠재적 위험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될까. 동북아에서 당장 큰 문제가 금년에 생길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양안문제다. 특히 천수이볜(陳水扁)이 이번 총통선거를 두고서 독자노선을 이야기하면서 대만독립선언을 하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에 후진타오는 대만에 대해서 무력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할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적 추세는 동북아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우선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북아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도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양안문제를 빼 놓고, 가시화된 분쟁이나 전쟁 같은 것은 동북아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로 한미동맹 흔들리면 경제 악영향

한반도 문제는 크게 나뉘서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균열이다. 한미동맹이 흐트러지면 안보불안감이 크게 조성되면서 경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도 상존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이 가져올 후유증도 결국 부담된다. 한국의 안보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론분열이 가장 큰 문제다.

북한이 핵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핵탄두와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입증을 위한 핵실험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안 한 것은 세 번째 뿐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핵탄두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본다. 89년 이전에 핵탄두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 왔는데 작년 4월 3자 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가 제임스 켈리 미 차관보에게 귓속말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획득한 핵탄두를 북한은 과거 핵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우선 그것을 확인할 길은 당장 없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니까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동결된 현재의 핵과 함께 미래의 핵도 문제다. 바로 고농축우라늄문제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국이나 중국은 개발은 시도했지만 공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정보 해석상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북한을 그냥 놔두면 핵 국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미사일 역시 보유중일 확률이 높다. 결국 핵탄두도 갖고 있고 실어 나를 능력도 있다.

세 번째인 실험은 아직 안 했다고 보는 것이다. 우발적 충돌이 생겼을 때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갖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핵실험은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을 가지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핵 억지 능력에 대해 강하게 믿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면 북한 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선 협상타결론이다. 6자회담을 통해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적대적 무관심 전략과 군사 행동론도 있다. 협상타결론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동시교환론이 설득력이 높다. 핵포기를 선언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논리다. 다만 곧 재개될 6자 협상은 쉽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안되면 그 다음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고립봉쇄론이다. 김정일 체제를 붕괴

중국위협론과 중국공생론이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지금은 국제테러리즘 때문에 중국과 협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다. 신보수주의자의 중국위협론이 내재화 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한국에 주는 함의도 크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5년에 소위 헌법개정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사회 전체에 흥미하고 있는 신민족주의 성향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 일본의 신민족주의는 역사수정주의적 시각이 강하고, 일본이 자력갱신해서 보통국가로 가는데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쓴 신타로 이시하라가 요즘은 완전히 친미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중국위협론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의 국가' 라고 해서 일본은 천왕도 다시 부활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회적 불안요인도 많고, 불안요인을 막으려고 하니 결국 민중주의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본적 정서 때문이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시켜야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수순이 먹혀들지 않았을 때는 고립봉쇄, 체제전환론이 큰 물결을 탈 것 같다. 그것도 안되면 나오는 것이 군사행동론이다. 군사행동론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전략 자체는 바뀌었다. 그것을 군사변혁 또는 전환전략이라고 하는데 과거 냉전시대처럼 미국의 전략구조를 유지할 수 없고 해외에 많은 미국 군을 갖다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토에 두면서 기동성이 있고, 화력이 강한 군대를 두는 방식이다.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빼갔고, 지금 독일에서 빼 가는 과정이다. 주일미군도 상당히 감축될 예정이다. 이것을 가지고 특정 정부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NATO와 더불어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다. 구조적 동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구조적 동맹은 ▶공동의 위협의식 ▶군사협력의 제도화 ▶상호 방위부담의 수용 ▶동맹국 사이에 아주 긴밀한 협의와 합의체제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이것은 잘되어 왔다. 북한과 소련, 중국의 공동의 위협이 있었고, NATO 못지 않게 미국과 한국간에 완전히 통합된 지위, 통솔체제가 되어 있었고, 방위분담도 미국 수준 못지 않게 해왔다. 다만 그 동안에 협의와 합의체제는 문제가 조금 되었다.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공동의 위협의식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 보고 있다.

북핵문제는 국가·민족의 큰 틀에서 해결해야

북한 위협은 계속 상존할 것으로 본다. 북한체제의 모순 때문에 그렇다. 강성대국과 개방정책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한 간헐적 군사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지역도 그렇다. 유독 그 지역만 위협하지는 않다. 이라크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도 분쟁이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고 희생자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희생자가 났을 때 우리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중동이나 동남아 해외 거점에 나가 있는 재외한인들이나 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있다.

제일 염려되는 것이 국론 분열의 한반도다. 6자 회담이 잘 안 되어 북한에 대해서 강경조치가 있을 때 현 참여정부가 거기에 동참해 줄 것인가. 나는 동참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북핵문제가 없었다.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서 동결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는데 만약 북한 핵문제가 관련해서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대북경제협력을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과정에서 한미간에 균열뿐 아니라 국민적인 국론분열도 문제다. 동맹파와 자주파의 문제도 부각된다. 이것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된다.

북한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한쪽에서는 맹목적 포용론, 다른 한쪽에서는 맹목적 고사론의 두 시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추가파병이 결정되었지만 거기에서 우리 군 희생자가 생겨났을 때 파경파와 파병불가파들 사이에 엄청난 사회적 균열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경제보다 안보문제에서 갈라지는 분열이다. 갈라진 나라에서는 강한 안보가 있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의 틀 안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것으로 싸울 일은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도 안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것으로 나뉘지는 상황은 상당히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미국이 허락하는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떠나면 우리가 중국 편에 붙을 것인가, 일본 편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핵을 가져서 중간세력 국가로 전환하겠는가. 그렇다고 19세기말 일부 주장했던 것처럼 영세중립국을 선언해서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되겠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의 고마움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극단적 시각 사라지고 중도세력 등장해야 희망

미국이 갑자기 떠나서 한미동맹이 끝났다면 우리가 대륙세력에 붙든 해양세력에 붙든 독자적인 힘을 갖든 소극적으로 영세중립국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어려운 옵션이다. 주한미군이 떠나고 한미동맹이 끝나면 19세기말이 재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초할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은 그런 점에서 통일을 해도 한미동맹이다.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의해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통일이 가능해지고 한반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 북한에 보다 더 공세적 접근이 필요하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정보 교류망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도 그렇고, 너무 안보사안을 갖고 쟁점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요즘은 모든 것이 찬반 양론이다. 가운데 중도가 없다. 언론 자체가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 자체는 중도적 시각은 없어지고 아주 극단적 시각만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언론들이 빨리 시정해야 한다. **人間**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평생외교관

홍순영 한국외교협회 고문 / 前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세 계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과 함께 한중관계를 협력관계로 유지 발전시켜나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세계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자유를 지킨다는 안보의 틀 안에서 우방이 할 수 있는 '간섭'과 '압력'을 행사해 온 미국과의 관계 또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공동체의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북핵문제의 분명한 해결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의 외교는 50년이 넘는 전통성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교현장에서 소임을 다 해온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직언을 서슴치 않는 성품으로 리더의 자질까지 겸비해 직원들의 신뢰를 받으며 외교부의 위상정립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개혁론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특히 오랜 외교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문제를 관철하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다방면에 능통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연구원이 의욕적으로 발족시킨 차이나클럽의 초대 회장에 선임되어 앞으로 차이나클럽이 한중관계의 가교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홍순영 전 장관을 만나 중국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세계적 관심사인 대북문제와 관련된 한미관계의 발전방향, 그리고 외교현장에서 겪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먼저 저희 연구원에서 발족한 '차이나클럽'의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함께 각오부터 말씀해 주시죠.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몇 세기만에 일어날 만한 큰 사건으로 이제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차이나클럽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와 중국경제의 협력, 보완을 위해 결성된 차이나클럽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서지만 여러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이나클럽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한중관계가 기존의 한미관계와 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은 제1통상교역상대국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이나클럽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한중관계를 협의협력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에 관한 연구와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때문에 꾸준한 학습과 중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한중관계를 동반자관계로서의 파트너십을 높여 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예요. 결국 파트너십의 기본은 상호이해, 상호존중, 상호신뢰에 있는데 이것을 구축해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 해준다면 차이나클럽이 한중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외교통상부의 위상정립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주창해온 개혁론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업적이나 일화 좀 소개해 주시죠.

외교관이란 것은 전문가들의 직업입니다. 21세기를 전문가사회라고 하는데 전문가사회라는 것은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중시하고 전문가들로서의 자질이나 실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관시절 외교통상부를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살리고 자질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뒀어요. 그리고 외교부가 정책, 인사에 있어서 정치화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정치영향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내걸었던 구호가 '독자적 사고를 자기고 우리의 할 말을 다 하면서 열린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50년 넘게 이어져 온 외교부의 전통성을 중시하면서 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목

소리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외교에서 특별히 한 가지 추가할 것은 글로벌시대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과대하게 주장해서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이제는 시대에 맞게 세계가 무엇을 생각하고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이것에 입각해 외교를 끌고 가야 합니다.

외교통상부가 전문가집단으로서 글로벌시대에 국가발전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외교협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외교관의 생활이라는 것이 반은 공부하는 것이고 반은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학자와 행정가의 일을 모두 맡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관들은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많은 퇴임 외교관들이 과학재단에 몸담거나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기업체나 교육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외교관 자신들의 자질과 이론과 실재를 잘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대접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현 국내정세와 관련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미관계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정권이죠. 공산주의가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고 일으킨 것이 6.25전쟁이었고, 이를 자유의 이름으로 지킨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은 군사독재정권을 부추킨 것이 아니라 많이 '간섭' 하고 '압력'을 넣어서 우리의 민주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관계가 종속관계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중국의 등장과 관련해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조율사로서 미국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코드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 평화파괴의 배후 세력,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견해죠. 그래서 잘못된 시각을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임무이고, 외교부가 그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상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반발도 있겠지만 현실인식도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자유를 지킨다는 것과 세계의 평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세계평화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도덕적 목표를 가지고 무력행사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침공 후에 많은 반성과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후처리를 위해 많은 나라에 조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힘과 무력만 믿고 행동하는 아무 도덕성이 없는 나라라고 매도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국민의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직을 역임하셨는데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햇볕정책은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 즉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독재국가와 민주국가 사이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공존하자는 것이 기본 동기입니다. 그러나 평화공존은 하지만 경쟁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존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공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지원은 그 뜻이 있어 계속 진행되어야 하지만 경제협력이나 핵문제는 다릅니다. 특히 핵문제는 분명히 해결되

어야 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미국과 중국 등에 알리고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견해를 잘 파악해서 국제사회의 입장과 우리 입장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고립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북한이나 글로벌시대에 번영을 이루기는 힘이 듭니다.

지난해 3월 저희 연구원의 경영자연구회에서 한반도의 내외정세와 새 정부의 외교전략에 관해 강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 한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나라가 당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력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경쟁력이 높아져야 실업자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떨어져 경쟁력도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세계공동체와 협력하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가위상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그 위에서 신용경제를 펼치는 것이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를 국내정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정치역량, 경제역량을 비축해 그 위에서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현상은 북한체제로 하여금 전쟁유혹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치리더십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개혁의 이름으로 정직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써 개혁의 종착점은 완벽하고 보완된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냐 우냐 하는 극단이 아니라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에 서서 여론을 결정하고 책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원래 양극 중의 하나를 가지고는 국론통일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의 선상에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 주의할 것은 어느 한쪽을 없애자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외교현장에 계셨던 만큼 보람있는 일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외교관도 따지고 보면 반드시 양지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선을 넘을 때도 많은 직업입니다. 저 또한 1983년 미얀마에서 일어난 '아웅산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때는 현장조사도 나갔어요.

그러나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나라 국가원수를 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품, 정책, 비전에 대해 듣고 배우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저도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다 보니 친분도 쌓게 되어 지금까지의 모든 외교활동이 보람되는 일이고 자랑이라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1985년 한국을 방문했던 지아울 하크 파키스탄 전 대통령, 모하메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 그리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 전 대통령 등과의 친분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고 외교관으로서의 보람된 경험입니다.

외교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독서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평소 건강관리나 취미생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오랫동안 외교 현장에 있다보니 외교 교과서로서 읽은 책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직업분야가 아닌 책으로는 파스칼의 「팡세」를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서는 꾸준히 읽고 있지요. 한 때는 종교서적에 많이 탐닉했는데, 요즘은 여러 종류의 책들을 천천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외교와 관련된 잡

지를 많이 읽고 있어요.

건강은 평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기공체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취미 삼아 주말에 골프를 치는 정도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죠.

장관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인간개발연구원의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슬로건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의 회원들은 각자가 작든 크든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연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자질, 인격, 지혜를 가지고 CEO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사회발전의 핵심이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토론과 연구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컨대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속도도 빨라야 해요.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유능하고 용기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 또한 연구원의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소신있는 국가관이 확고한 경영철학으로

김석기 관동실업(주) 사장

저는 국가의 장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빛나는 국가로 발전하려면 국민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여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김석기 관동실업(주)사장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한다. 사실 현실이 그렇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국내외의 돌아가는 상황은 경영자들에게 있어 기업할 의지를 흔들리게 하는 불안한 정국이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고, 지진이 일어난 땅에도 샘은 솟아나게 마련이다.

이런 때일수록 너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려운 난관을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경영자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재도약 할 때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시절은 배고프고 가난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생활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나는 제1군 하사관 학교에 입학해 1966년에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월남 정글에서 배트공과 싸운 3년 동안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더욱 용기를 내어 부하들을 진두지휘하며 적과 싸웠다. 그런 한편으로는 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대원들에게 파병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회와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각각에 맞는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덕분인지 네 차례의 무공훈장 등 여러 표창을 받았고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지금까지 나의 국가관과 기업을 하면서 지키려 노력하는 경영철학은 변함없는 굳은 의지로 지속되고 있다.



1969년 귀국한 나는 그 후 7년간의 정든 군복을 벗고 1976년 봄에 관동실업이라는 알루미늄샤시 회사를 창업하였다. 사업은 내게 있어 새로운 시작으로 사업초기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월남에 파병되어 생활하는 동안 느꼈던 인내, 협동, 단결의 정신과 좌절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노력하여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어느덧 나 자신도 기업가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우리 회사의 사훈이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상 형성'이다. 이는 곧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자신의 기쁨보다는 남의 슬픔을 먼저 생각할 줄 알자는 것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다. 이것은 군복을 벗고 기업가로 변신한 지 30

여 년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는 나의 가치관이요, 국가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짧았던 경험만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직원들의 리더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사업으로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못 다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에서 갈망하던 학업의 욕구를 채우게 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경영자로서 지녀야할 자세를 배우기도 하였다.

기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이나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을 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회사의 주인은 모든 직원들이다. 사장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고 훌륭한 비전과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장 한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자는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30여 년 사업을 해오면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경영자로서 지켜야할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는 나 자신부터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들은 경영자와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채워 가고 있다.

첫째, 직원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경영자는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재정을 공개 운영하고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은 부분일지라도 사원들의 생일을 기억해주거나 각종 기념품이나 선물증정을 직원들에게 먼저 한다면 직원들 또한 회사를 내 것처럼 여기고 일을 할 것이다.

둘째, 거래처에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평소 경영자가 품위 있는 행동을 하고 거래처와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며 거래회사의 초청 등에는 필히 참석하여 거래처를 사업의 동반자로서 여겨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능력 한도 내에서 회사 운영을 해야한다. 누구든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기능력 한도 내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영을 함에 있어 타인의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회사와 자신만을 믿어야 하며, 회사의 이익이 발생해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보다 탄탄한 미래를 위해 저축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여유자금이 조금만 생기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확장은 최소한 몇십 년을 바라보고 계획하여야 하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경영자의 투철한 의지와 실천이 따를 때에만 성공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깊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나 또한 관동실업을 경영하면서 절대 불의의 수단으로 부를 창출하려 하지 않았고, 정의롭고 깨끗하며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지금의 직원들이 나의 경영방식을 믿고 따라와 주었기에 관동실업이 작지만 견실한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일년의 사계절과도 같은 것이다. 봄은 유년시절, 여름은 청년시절, 가을은 장년시절, 겨울은 노년시절이다. '春若不耕이면 秋無所望' 이라,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월남에 파병되어 국가관과 가치관을 확고히 다잡았던 내 경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에 나의 철학이 배어들게 하는 인생이 이제 가을의 수확을 거처 겨울의 따뜻함을 준비해 또 다른 내일을 시작할 힘을 주리라 믿는다.

끝으로 장만기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적으로 발전해가야 하는데 연구원은 많은 회원들에게 좋은 정신과 참신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학술단체이기 때문이다. 2004년 새해에도 인간개발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 (人間)



1. 김석기 사장은 월남에 파병되어 네번의 무공훈장을 받았다.
2. 직원들과 등산을 즐기는 김석기 사장

부자 되는 삶의 방식



제37회 영천시민강좌 - 2003년 12월 4일(목)

저는 사람에 관한 연구를 2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관찰해보면 이 사람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관찰에는 돈 쓰는 것, 시간 보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두 가지 특성에는 신명과 재주가 있습니다. 신명을 생산적으로 쓰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것에 신명을 다하면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40만 명이 있고, 공익근로자 100만 명, 실업수당수령자가 600만 명, 그리고 133만 명의 청년들이 비근로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근로자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에 비극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비극은 2020년으로 예상됩니다. 대졸 미취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 사무직만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생수가 캐나다 다음으로 높습니다. 앞으로는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잘 살수 있는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잘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고생도 모르고 너무 귀하게만 키우면 그 결과는 부모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으로 자녀 당사자는 무너지게 됩니다. 집안에서 자녀가 최고 상전의 위치에 있고, 내 멋대로의 기와 나만 아는 기, 즉 이기주의를 한껏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서 부모가 대접을 못 받으면 밖에서도 대접 못 받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게 하는 마음은 공짜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공짜는 정신적인 암입니다.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원이상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1200만 명에 달합니다. 정선 카지노를 이용하는



최상호
국민정신연구소 소장



사람이 하루 평균 2500명에 달하고 1인당 평균 48만원씩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도박산업은 국민 1인당 34만원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에게 공짜의 개념을 심어주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많은 지출과 낭비는 곧 망하는 길입니다. 김포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중심지를 만든다는 명목 하에 인천국제공항을 43만평이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부지를 투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김포의 국제공항은 대형할인매장과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김포공항 옆에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사용하고 그 비용은 빚을 갚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97년에 102조였는데, 작년 말 현재 191조에 달합니다. 결국 일을 벌이기만 할뿐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전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95%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은 50%만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지출비용의 2%를 차지하는데 반해 휴대전화 이용비는 그 4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큰부자는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이 1985년에 평균 900만원 정도였습니다. 97년에는 3700만원으로 일본인의 세배, 미국인의 다섯배, 싱가포르의 일곱 배에 달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가 망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비용을 고려하기보다는 체면과 이목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남의 눈과 체면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의 색깔대로 살면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자기자신의 색깔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남은 여생은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방법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자입니다. 국민소득 4만 불인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미국을 보면 15~19세 고등학생들 중 직업이 있는 학생들이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직장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30여 년 동안 소비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근검절약 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잔소리 위주의 자녀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잔소리는 자녀의 의지를 나약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포장된 독약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방법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노하우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제는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3~6세에 거의 완성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간섭을 통한 조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자녀는 학습지를 통해 12%가 개발되지만, 놀이를 통해서 67%가 개발이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곧 과보호입니다. 인간의 정신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심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릅니다. 저는 악역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자녀를 키우고자 합니다. **자녀는 성장기에 가난을 경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독립을 선언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을 통해 책임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잘 사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3대 부자는 12%밖에 안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잘 사는 방법은 정신력에 기인한 것이고, 이 정신력은 어렸을 때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번만큼만 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천은 지리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풀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남은 여생동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人間**



교육을 중시하는 경영자의 참모습

송병순 (주) 중원 개발 회장

평소 직원들의 교육사업을 가장 중요시해온 송회장은 광주은행 재직 당시 장만기 회장님과 함께 LMI를 출범시키신 인물이며 지금까지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구원의 산증인이십니다. 인터뷰 시간 동안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회장의 모습에서 연구원의 또 다른 역사를 읽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리 : 정용달 기자〉

연구원과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1975년 재무부 관세국장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정책이슈가 ‘수출입 면세료의 환급제도’ 였는데 제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죠. 그때 장만기 회장님이 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것이 연구원과의 첫 인연이죠. 그 이후로도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회에 본격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국민은행장 시절부터니까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LMI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1989년 광주은행장으로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은행 직원들의 업무자세가 제가 바라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변화를 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적당한 교육프로그램을 찾던 중 장회장님이 LMI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직원 1인당 100만원씩 100명에게 LMI 교육을 시켰지요. 이를 계기로 LMI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원과의 오랜 인연으로 인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강사, 강의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그 동안 이루어진 모든 강연들이 연구회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보다 더 놀라는 것이 2~3개월 앞에 닥칠 시대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정권 교체 시기에는 그에 맞는 전문가를 미리 초

빙하여 변화하는 시대를 조명해보는 등 연구원의 선견지명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평소 인생철학이나 좌우명은 무엇인지요.

철학이랄 것은 없지만 저는 평소 ‘이 일을 해서 목표를 성취했을 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즉 일에서 보람을 찾자’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안 여러 기관의 경영을 맡아오면서 교육사업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육이란 것은 간격을 뒤희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업들이 IMF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재정을 감소시킨 부문이 교육투자비였지만 저는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교육비 투자를 과감히 늘렸습니다.

금융업 경영을 오래 하셨는데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카드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선진국의 화폐수명이 5년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화폐수명은 2년 정도에 불과해 화폐의 수명도 늘리고 신용경제, 신용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지요. 그러나 거리에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꼈는데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금융업이나 카드문제에 대한 경쟁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금융업은 조직에 비해 인력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사고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죠. 사람 수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연구원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30여 년간 인간개발이란 한 분야를 홀로 개척하고 발전시켜 오신 장회장님의 끈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모든 프로그램이 개인의 습관을 변화시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人間)

생각을 매일 같이 쓰면 당신도 성공한다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

생각을 같이 쓰기에 명수인 폴 J. 마이어는 불과 27세에 억만장자가 된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성공이란 끊임없는 여행이다. 여행을 다 마친 종착역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보면 자기를 같이 쓰는 일에 명수들이라는 사실이다. 풀을 잘 깎고 벼를 잘 베기 위해서 농부는 낫을 같이 쓴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칼이 잘 들도록 같이 써야 맛깔스럽고 미각을 돋구는 음식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다. 집을 짓는 목수는 멋있고 예술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패나 톱을 매일같이 같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스스로를 같이 써서 쓰고 있는 나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매일같이 자기를 같이 쓰는 사람들은 더욱더 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건축할 때 목수들이 나무를 대패질하거나 톱을 사용할 때 잘 들지 않는 것을 사용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 또 우리가 아무리 큰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같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를 같이 쓰는 사람
운동선수도 자기의 기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 매일 훈련을 통해 능력을 갈고 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 매일 가는 연습 즉 '연주'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대연주가일수록 자기를 같이 쓰는 것에 더욱 열정적이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보통 인사말이 '칼 많이 갈고 왔느냐'는 물음이다. 어떤 게임이든 실력이 모자라다 싶은 사람에게 늘상 쉽게 하는 말이 '당신 칼 많이 갈고 왔느냐' 하고 묻는 것이다. 또 의외로 놀라운 기량을 보이면 '저 친구 그 동안 칼 많이 갈고 왔는가보다' 고들 한다.

자기를 같이 쓰는 사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재방송이 없는 생방송인데도 자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칼 가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던 말인가? 당신도 운동선수나 음악가, 그리고 훌륭한 목수처럼 매일같이 자기를 같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신도 오늘부터 매일 30분~1시간만 당신을 같이 쓴다면 분명 당신 인생의 미래에 풍요로움을 보장받게 된다. 그럴 때 당신 앞에는 끊임없이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가끔은 발을 헛디디게 되어 발목을 다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이다. 잘 아는 인생살이도 빼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생각을 같이 쓰는 습관을 가

져야 할 때이다. 그대, 인생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당신도 머뭇거리지 말고 반드시 매일 당신의 생각을 같이 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생각해보자. 목적지를 가는데 항법장치가 잘 갖추어 있다 해도 항로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날아가는 도중에 항로를 수없이 벗어나지만 다시 바로잡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자기의 생각을 같이 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같이 생각을 같이 쓰면 어떤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매일 생각을 같이 쓰면 당신 생각의 지적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 인생수준을 결정하게 해주며, 당신 운명도 바꾸게 되는 핵심요소이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생각과 성공하는 삶
우리는 지금 평생직장이란 말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오르지 않다면 경쟁력을 갖는 것만이 나를 보호 할 수 있다. 틈새시장을 당신이 매일 같이 생각을 같이 쓴다면 당신의 미래는 항상 장미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1%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다. 사실은 1%, 1%의 성공이 합쳐서 결국에는 100%의 성공을 만들어 내듯이 매일같이 자기 생각을 같이 쓰는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과 성공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과 성공하는 삶

PAUL J. MEYER는 이미 42년 전에 자기 생각을 같이 쓰는 방법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정녕 사랑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같이 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당장 그 길을 찾아 떠나보자! **人間**

PAUL J. MEYER는 이미 42년 전에 자기 생각을 같이 쓰는 방법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정녕 사랑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같이 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당장 그 길을 찾아 떠나보자! **人間**





21C 한국주식회사, 뭉쳐야 산다!

組織!

화합과 협동단결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모래와 모래의 만남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모든 조직의 철학은 조직인의 애사심을 응집시키는 기본적 요소인 화합과 협동단결로 이어져야 한다.

함께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목표를 향한 움직임과 행동과 고집이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항상 변혁이 있어 왔으며, 그로 인해 역사는 거침없이 발전해 왔다. 특히 과거의 역사를 5세기 단위로 끊어 보았을 때, 항상 세기말이나 세기초에는 기다린 것처럼 거대한 변혁이 있었다. 실례로 16세기에는 인류문명의 3대 발명품 중 하나인 화약이 제조되어 역사의 軌를 바꿔 놓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조직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

21세기를 시작하는 현시점도 분명코 대변혁의 변곡점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조직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모든 조직들은 앞만 보며 정신없이 질주해 왔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조직경영을 해왔지만 이쯤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내부의 질적 부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의 현실이 무엇인가 일치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위기(Crisis)의 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조직체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 경쟁력 상황이 그리 간단치는 않으며, 정치나 경제적 대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부터가 바로 위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박영식
세계기업문제연구소 소장

공존 · 공영 차원에서 '협조자' 가 꼭 필요

특히 무한경쟁의 WTO시대가 도래한 이후 모든 조직은 일류가 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기업을 사례로 미국 포춘紙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세계기업의 평균수명이 50년이고, 한 업종의 평균수명은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국기업의 평균수명은 대략 30년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간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혼자 발전할 수는 없으며,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존 · 공영 차원에서 '협조자' 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조직은 지속적 발전의 틀 속에서 '끼' 를 같이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한 파트너가 분야별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울 땐 서로가 사기를 북돋워 주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위기와 새로운 기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협력 파트너로 지속적인 유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뭉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진다'

징기스칸의 가족에 대한 일화가 생각난다.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다섯 아들을 불러놓고 화살을 나누어주었던 이유와 암시적인 뜻을 생각해 보자. '뭉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진다' 는 이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는 상호공존하기 위해 같은 길을 협력하여 가는 주인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하겠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협력 파트너가 1,300여 업체나 된다. 1990년대부터 일본의 경기가 어려워 졌을 때 도요타자동차의 회장은 협력업체 사장단 시무식에서 '우리는 50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한 파트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고 하면서 난국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같이 찾자고 했던 사례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에 우리 모든 조직들도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주위의 파트너와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것이다.

우리의 뼈아픈 4,337년 역사 속에서 932번의 외침으로 어렵게 국가를 이어오고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며 지나온 역정이야말로 개인이나 조직이 '뭉치면 산다!' 하는 동심주의가 강하게 발전하여 상대나 주위를 인정하며 배려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언뜻 생각하게 한다. 서로가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부터 변하겠다!" 는 자세와 각오가 있다면 조직은 밀감처럼 단단해지고 옹골차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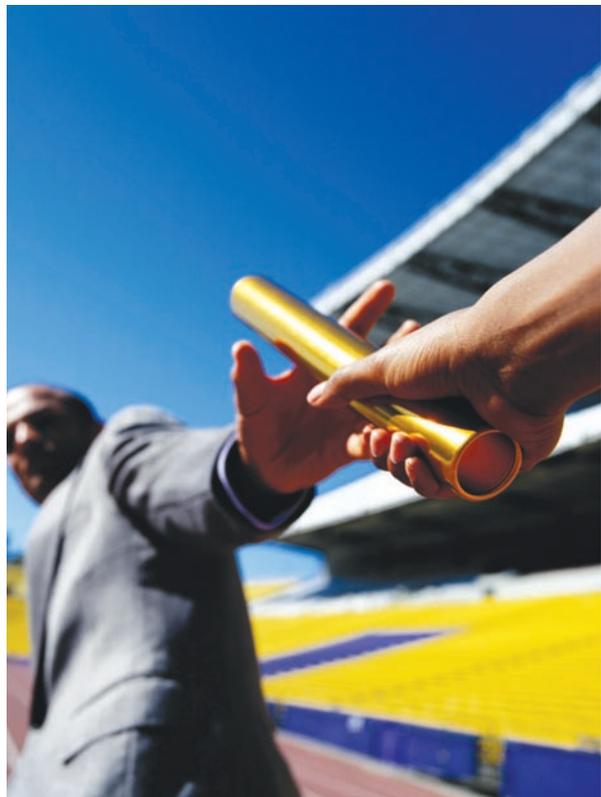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경험과 실지를 투자하라

필자는 모든 기업의 일반사원부터 최고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다. 그때마다 '항상 꼭 기억하고 조직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고 부탁하던 내용 중에 事上磨鍊형 관리, 知上磨鍊형 관리에 대하여 강조했던 생각이 난다.

이는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경험과 실지를 투자하라는 말이다. 화합과 협동단결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모래와 모래의 만남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모든 조직의 철학이 기본이 되어 조직인의 애사심을 응집시키는 요소인 화합과 협동단결로 이어져야 한다.

衆心成城

끝으로 衆心成城이라는 말로 주제를 대신하고자 한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것이 바로 城과 같이 된다는 뜻이다. 옛날 속담에도 '모기가 모이면 천둥소리가 난다', '지푸라기라도 많이 있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여 三生原理인 一生一念, 一生一願, 一生一業을 신조로 하며 1등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다. (人間)



회원소식



• 월간 월간골프가이드(대표 강민지)가 2004년부터 미주판이 발행된다.

• 서울상공회의소(박용성 회장)는 12월 26일 태평로클럽에서 서울지역경제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전순표 강동구상공회장(주)세스코회장**을 선임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지역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상공인의 권익향상 및 경영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주)이앤씨정보기술(회장 방기봉)**은 2004년 1월부터 금강산 관광 전자화폐 주관사 및 현대아산 협력사인 티엔비커머스 주식회사와 함께 온라인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금강산 관광 신청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을 하고 각종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다양한 관광정보(www.tnb.com)를 접할 수 있다.

• **농협(회장 정대근)**은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영세 농업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총 19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선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 작년 7월 온국민하나로예금을 시판하면서 이 예금 판매액(평잔 기준)의 0.1%를 자체부담으로 조성, 매년 소외계층을 지원키로 약속하였다.

• 지난 12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링컨대학교의 총장 "클래런스 더블유 리플"박사의 아시아순방에 즈음한 방한에 맞추어 환영, 송년 및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이왕열(기네스리그룹 회장) 본교 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남기현 한국NGO지도자총연합 총재**가 명예경영학박사, 동문인 **김태인 삼부해운 회장**이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 **김순무 한국아쿠르트 사장**은 최근 서울시 미군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를 방문, 이웃돕기 성금 4억1532만원을 전달하였다.

• **KTF(대표 남중수)**가 지난해 7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굿타임 서비스가 최근 KTF 고객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진가를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브랜드 전문업체인 브랜드스톡이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KTF의 '굿타임'이 삼성전자의 '애니콜'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사례 발표

김흥식 장성군수는 지난 1월 29일(목)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 균형발전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고 이를 이끌어갈 국토발전의 중장기 구상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마련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 참가해 인간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의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 모범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 700여명이 참석해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조명해 보았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광인	김용희 회장	(1월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의승 이사장	(2월 1일)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이종원 회장	(2월 1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오경근 원장	(2월 7일)
한국전통식품(주)	이영신 사장	(2월 14일)
한국GE	이채욱 사장	(2월 22일)
진양공업주식회사	한영호 대표이사	(2월 24일)
신라철강(주)	이수용 대표이사	(2월 28일)

신규회원

김용운 엘칸토그룹 회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1월 6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32
- 전 화 : 02-778-3376
- 팩 스 : 02-752-0527
- 추 천 : 장만기 회장



박상유 유상테크 사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1월 6일
- 주 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7-1 삼정공단내
- 전 화 : 032-652-0888
- 팩 스 : 032-652-0889
- 추 천 : 박춘봉 부원광학 사장



박영자 (주)에스아이엔큐 사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1월 6일
-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667-25
- 전 화 : 02-518-5043
- 팩 스 : 02-364-0403
- 추 천 : 엄경애 (주)한국LMI 사장



김정자 유진가공산업(주) 대표이사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1월 8일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0-2 11-9 B/L
- 전 화 : 031-491-4711(202)
- 팩 스 : 031-491-1661
- 추 천 : 하경화 참옥돌 사장



하경화 참옥돌 사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1월 9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12 삼원빌딩 103호
- 전 화 : 02-517-2588
- 팩 스 : 02-516-1505
- 추 천 : 장만기 회장



박명진 주얼리 진 사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1월 17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르네상스 서울호텔 1층
- 전 화 : (02)553-9942
- 팩 스 : (02)553-9943
- 추 천 : 장만기 회장



김유훈 일신태광금속(주) 대표이사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1월 19일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4-1
- 전 화 : 031-494-8596
- 팩 스 : 031-494-5525
- 추 천 : 이창원 (주)태우금속 사장



인간개발연구원 연혁

- 1975 제 1회 주례 인간개발경영자조찬회 개최(2월 5일 창립, 2004. 1월 현재 1335회 개최) 박동모 전 농림부장관 초대회장 취임
- 1976 과학기술처(인력개발관실, 당시 최형섭 장관) 사단법인 인가 人間資産開發 紙上캠페인 실시 (연간 전면 47회 게재, 현대경제일보 공동)
- 1978 최고 경영자를 위한 「노사협조세미나」개최 (故주 원 전 건교부장관 제2대 회장 취임(제2대-4대 회장 역임)
- 1979 목요 인간개발연구회 개설, (하계)인간개발경영자세미나 개설 (총 22회 개최, 섬머포럼으로 발전)
- 1980 「인간개발토요시민강좌」개최 (총 24회 실시) 월례 인간개발경영자 조찬회(77회)와 목요 인간개발연구회(86회)를 주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로 통합함
- 1982 월간 「인간개발」창간 (총 74호 발간)
- 1984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으로 개칭
- 1985 최형섭 전 과기부장관 제5대 회장 취임
- 1987 (춘·추)전국경영자세미나 개설 (통산 20회 개최중) 월간「정신세계 다이제스트」창간 (총 12호 발간)
- 1988 월간「경영실천강좌 세미나」개설 (총 95회 개최) (故이한빈 전 부총리 겸 경기원장관 제6대 회장 취임)
- 1990 한국 LMI를 자매기관으로 설립, 인재개발우수프로그램 실시 (통산 80개사 실시 중)
- 1992 이규호 전 통일원, 문교부장관 제7대 회장 취임
- 1994 최창락 전 동자부장관, 산은, 한은 총재 제8대 회장 취임 (제8대-10대 회장역임)
- 1995 「인간개발 지방자치 아카데미」개설(통산 40개 지자체 실시 중)
- 1996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매경이노베이션」개설 (총 14회 개최)
- 1997 대통령표창(산업교육훈련 분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000회 기념 심포지엄」개설
- 1999 GE's CLO(Chief Learning Officer) Steven Kerr 초청 특별세미나
- 2000 日本 총리직속자문기구 "경제전략회의 의장 히구치 히로타로(아사히맥주 회장) 초청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인증제(IFA), 연구책임자 정진호 박사) 개발연구용역 수주
- 2001 월보 「Better People Better World」창간 무역대리점협회 후원으로 AFTAK FORUM 21 개최 일본경제신문 국제교류회의「아세아의 미래」참가단 파견 인간개발연구원 조직 및 임원을 회원중심으로 확대개편 정진호 2대 원장 취임 장만기 제11대 회장 취임 조 순 명예회장 추대 최창락 이사장 추대
- 2002 양병무 3대 원장 취임 윤병철 밀레니엄경영자섬머포럼 조직위원장 추대
- 200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 해외친목회와 자매결연 제주도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제23회 밀레니엄경영자섬머포럼 개최

회원가입을 추천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소식



소모임소식

지중해클럽

• 지중해클럽 2월모임은 18일(수) 오후 7시 예정이오니 미리 체크해두시어 꼭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2004년 지중해여행은 4월 중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미리 참고하시어 많은 회원분들의 참가 부탁드립니다. (문의 : 회원부 02-2203-7265)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에서는 2월27일~3월1일까지 일본여행이 진행 중입니다. 가고시마에서 골프와 온천을 계획 중이오니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시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이종기업동우회 총무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032-822-7071)

행사소식

신년하례회

• 2004년 1월 6일(화) 본 연구원은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과 교수를 모시고 160여분의 회원 및 강사님들과 신년하례회를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우창욱 동명인쇄 사장은 인간개발연구원 2004년 달력을 제작해주셨으며 (주)서호 한철웅 회장님은 사과 160상자를 협찬해주시어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및 강사님들께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사무총장 취임



• 본 연구원은 금년 1월부터 오세훈 전 굿브리치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오총장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아그룹 홍보실장, 세계 톱클래스 광고대행사 J. Walter Thompson Detroit 근무,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극단 아리랑 창작 고문 등을 역임하였으며 미시간대학 커뮤니케이션 스쿨을 수학과 조선일보 광고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YOUNG CEO FORUM 발족



• 본 연구원은 1월 27일 논현동 와인갤러리에서 YOUNG CEO FORUM (YCF)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앞으로 본 연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갈 디지털세대 회원님들과 원로회원님들의 자제분들을 포함하여 30여분의 회원 및 각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비회원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YCF는 김상래 (주)성도GL사장님께서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으며, 부회장 최석태 한우림INC(주) 대표이사, 총무 김창호 (재)에덴스포츠레저타운 본부장께서 선정되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겠다는 각오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참석하신 회원들의 자기소개와 YCF의 정체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발족식을 위한 장소를 섭외해 주시고 경비를 보조해주신 김상래 (주)성도GL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YCF의 발전을 기원하며 더불어 원로회원님들께서는 경영수업을 받고 계시는 젊고 패기있는 CEO 또는 임원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연구원의 양병무 원장은 지난 1월 8일(목) 1시 30분부터 CBS 라디오 방송프로그램(표준FM 98.1MHz) '새롭게 하소서'(진행 : 박명규, 이명희)에 출연하여 감자탕교회를 다니면서 일어난 생활속의 은혜로운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영자 독서 아카데미

『로마인이야기 리더십과정』

이번 2월 특별히 경영자들의 독서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첫 번째로 한길사의『로마인이야기 리더십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기업 및 조직경영의 지침서로 애독되고 있는 <로마인이야기>를 통해 천년제국을 건설하여 번영을 유지한 로마인들의 지혜와 전략을 배우고,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인간, 조직, 국가경영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경인터넷과의 공동진행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번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감사

공병호 자기경영연구소 소장

강영철 풀무원 부사장

배동만 제일기획 사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김언호 한길사 사장

○ 국내교육

2004.2.17 ~ 2004. 3. 23 화요일 (총6주)

○ 로마현지답사

2004.3.31 ~ 2004.4.5 (5박 6일)

○ 문의

인간개발연구원 장소영 과장 2203-3500 내선107번

2. 에스케이알운용자문(주) "CEO 퍼스널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교육이 2월 셋째 주부터 매주 2시간씩 총 1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이나 업무 면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LMI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라이선시 파트너 신년회 및 제1회 정기 워크샵 개최

지난 1월 14일 라이선시 파트너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한 신년 인사회에 이어 2004년 LMI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정기 워크샵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 2004년 2월 3일 (화) 오후 2시 ~ 6시

○장 소 :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교육장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 석세스플래너 포함

기간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2203-1974 (H) www.lmikorea.com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기업 관리자교육 안내

1. 세람상호저축은행(구 이천상호신용금고) 제2차 "효과적인 개인 생산성(Effective Personal Productivity)" 관리자 교육이 총 8주 과정으로 1월 28일(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리더가 알아야 할 로마제국의 리더와 리더십

로마제국

로마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국으로 존속하고 유지된 국가이다. 기원전 753년에 탄생하여 기원 후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약 12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존속하였다. 동로마제국이 유지되었던 시기까지 포함할 경우 2200년 이상을 대제국으로 존재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징기스칸의 몽고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제국, 페르시아 왕국, 청나라 등이 대국을 건설하였지만 어느 국가도 500년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을까. 로마제국은 초창기엔 공화정으로 출범하였으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50년 전후에 활약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테디셀러 「로마인 이야기」는 현재 11권이 발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카이사르에 관한 내용이 두 권이나 된다. 이는 카이사르가 로마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 준다. 카이사르의 리더십 사례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인프라를 구축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다. 구체적으로 국경선을 서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소아시아로 정하고 영토확장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식민관제지만 속국의 문화와 종교 등 전통을 인정하면서 공존공생의 자세를 가졌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한다. 공화정 제도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 머무를 때는 적합했으나 대국으로 발전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로마제국의 건설을 비전으로 품고 평생을 노력하여 제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위해 로마법의 제정, 달력개정, 통화개혁, 행정개혁, 사법개혁, 사회개혁, 수도재개발 사업 등을 단행하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둘째, 기본과 원칙을 중시했다. 카이사르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웠다.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세제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식민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납세자 명단을 공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각 속주와 로마에 납세자 일람표를 발표하여 그 내용을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제멋대로 잣대를 휘두르는 직권남용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식민지에까지도 실시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개방과 관용정신을 실천했다. 카이사르는 식민지를 통치할 때 현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일정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를 적대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인식하도록 노력하였다. 갈리아 전쟁기에서 갈리아인의 종교나 풍습을 서술하면서도 그들이 로마인보다 열등하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리아인 특유의 것, 즉 갈리아 문화는 존중해 주었다. 그는 로마의 최고실권자가 되어서도 반대파까지 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전에서 승리하여 실권을 장악했을 때 부하들이 살생부를 만들어 반대파를 숙청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을 설득하여 관용정책을 고수하였다. 그가 암살 당한 이유도 바로 반대파들을 숙청하지 않고 등용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비극이었다.

넷째, 기록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부터 51년까지 8년간 갈리아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갈리아 전쟁기」를 발간했다. 또한 「내전기」를 집필하여 동족상잔의 비극까지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처럼 책을 발간한 이유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가 한 행위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집정관 시절에 원로원회의 결과를 광장에 써 부침으로써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유명하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2000년 전에 이미 실천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권한을 위임했다. 카이사르는 식민지를 개척할 때도 현지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믿고 맡겼다. 스페인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는 발부스라는 현지인을 발굴하여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군단을 이끌고 포르투갈을 제패하는 데 전념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갈 때 발부스를 동행했고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었으며, 훗날 로마의 집정관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또한 카이사르는 타 국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로마를 떠날 때는 국내정치 책임자를 임명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여섯째, 솔선수범했다. 카이사르는 전쟁터에서 늘 앞장서 싸웠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기에 부하들은 지도자를 믿고 따랐다. 전쟁터에서 그는 야전의 책임자인 선임 백인대장 역할까지 맡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고전하고 있는 군단이 보이면 후위에 있던 병사의 방패를 빼앗아 들고 그대로 최전선에 나가 백인대장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적진으로 돌격하라고 격려하기까지 하였다. 총사령관의 이런 모습에 병사들은 사기충천하여 용감하게 싸웠기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의 실천하는 리더십은 병사와 시민들에게 카이사르가 함께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다.

일곱째, 인사정책을 중요시했다. 카이사르는 능력을 중시하여 인재를 발탁하였다. 능력이 있으면 노예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여 활용할 정도였다. 또한 현지채용을 중시하여 속주를 관장할 때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부하가 세운 공적에 대해서는 그 부하의 이름과 공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상해 주었다. 공헌도를 실명제로 하여 부하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뛰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또한 후계자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기원전 44년 그가 암살당했을 때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후계자로 그의 먼 친척인 18세의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애송이에 불과한 청년을 후계자로 내세웠다는 점이 놀라웠다. 그는 12년 정도가 지나 옥타비아누스가 30이 되면 로마제국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유언장을 만들었다. 그가 한창 일할 나이에 후계자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선견지명을 이해할 수 있다.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실권자가 되어 최초의 로마황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카이사르의 안목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창업이 수성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는 미리서 수성을 준비한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였다.

카이사르의 리더십

카이사르는 로마제국의 토대를 닦아 놓았다. 그는 다른 정치인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행동할 때 로마의 미래를 놓고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다. 그가 암살되어 아쉬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꿈꾸던 세상은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계승되어 로마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카이사르의 리더십이 오늘날 지식 정보사회에서 더욱 돋보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로마제국과 카이사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벤치마킹이 무한정쟁시대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人間**

연구원의 而立을 준비하는 해가 될 터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존 경하는회원 여러분!
 연구원이 탄생 29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질풍노도의 청년기에 겪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거울삼아 나이 서른이 되면 앞으로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공자는 그 고뇌하는 젊은 지도자의 서른 살을 而立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뜻을 세워서 바로 걸어가는 믿음직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75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12.12, 5.18, 6.29,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민간정권의 등장, 6.15남북 정상회담 등 국가 사회적으로 한 세대가 교체되는 기간 동안 우리 연구원은 30년 그 격랑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존재로 성장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도도한 물결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본 연구원의 창립정신에 뜻을 같이하신 회원 여러분들의 덕택이었습니다.

연구원은 금년 한 해 동안, 특히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착실하게 준비하는 해로 삼으려 합니다. 30년사 발간작업을 통하여 국가 발전과 함께 나이를 먹어온 연구원의 성장발달사를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계획했던 도약의 구상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과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긴밀한 상의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벽돌 몇 개는 얹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박동모 전 농림부 장관, 최형섭 전 과거처 장관, 이규호 전 통일원, 문교부 장관과 故 주원 전 건교부 장관 그리고 며칠 전 소천하신 故 이한빈 전 부총리 겸 경기원 장관 등이 우리 연구원의 역대 회장을 역임하신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29주년 기념으로 전 조선 노동당 비서를 역임하신 황장엽 선생을 초청하여 연구원의 사회적 위상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회원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은 폴 마이어(Paul Meyer)라는 위대한 리더십 매니지먼트의 창시자를 만남으로써 태동되었습니다. 폴 마이어와의 인연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19세에 보험세일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7세에 역만장자가 된 특별한 능력자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에 수백만 명의 폴 마이어 프로그램을 수료한 지도자들을 제자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개개인이 가진 Human Capital을 극대화하여 개인과 기업과 사회와 나라가 행복하고 번영하고 국운이 융성하는데 작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LMI Korea와 함께 이 리더십 프로그램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0년에 걸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에 관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 편안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두루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29주년에 즈음하여



한 국기독교학교연맹을 대표하여 인간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축하라는 말을 뜻하는 라틴어는 'Com-더불어'와 'gratulari-기뻐함'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 29년간에 이룩한 업적은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 모두가 더불어 기뻐할 일입니다.

자연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에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모름지기 인간자원을 개발한데서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개발은 단순한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전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체언을 불요합니다.

플라톤이 「이상국」에서 말한 바 배(腹)와 같은 사람, 가슴(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머리(頭)와 같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본 원이 지도자들을 재교육하는 차원에서 니콜라스 바틀러가 말한 대로 What(현황판단), Vision(미래방향), How(일을 이루는 방법)을 1300여 회의 세미나, 각 종 출판물, 오디오, 방송 등을 통하여 수행한 결과는 '한강의 기적'을 낳는 발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인간개발연구원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노무현정부가 내건 모든 정책과 제들은 '국민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으로 집약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삶의 빛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파벌간, 정당간의 파쟁장으로 전락했고, 경제는 윤리가 상실된 도박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가 되고, 정경유착의 결과는 빈번한 '게이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실은 '교실붕괴'로 여실히 露보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김정일 집단은 NPT를 탈퇴한 후 핵개발을 시동했으며, 신형 크루즈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다기 보다도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일은 참된 인간개발입니다. 그간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어 오신 최창락 이사장님, 조 순 명예회장님, 장만기 회장님, 양병무 원장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더욱 건강하셔서 더 큰 업적을 쌓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리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人間



이원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웰빙의 허점



특별
이시형

요 즘 Well Being이 봄이다. 이제는 단순히 무병(無病)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멋있게 살겠다는, 참으로 아담한 생각이다. 젊게 아름답게 개성적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적절한 운동, 문화, 여가, 다이어트, 스타일 등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

고령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신경 섬유층이 증식

한데 여기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다. 공부다. 지적수준을 높여야 젊음과 건강이 보장된다. 중추신경에 지적자극을 줘야 신경 세포의 대사가 촉진되고 기능이 활성화된다. 뇌중추가 젊고 활력에 넘쳐야 몸도 거기에 따라간다. 쓰지 않으면 신체 기관은 위축된다.

이것은 의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발달된 뇌 과학은 이를 실증하는 연구 보고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칠순, 팔순 고령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신경 섬유층이 증식하고 있다는 놀라운 보고다. 이것은 곧 지능도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젊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암스텔담의 보고는 지적수준과 장수와의 관계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 55에서 85세 사이 2,3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먼저 학력별 건강과 장수는 고졸이 제일 높고 다음이 대졸, 중졸 순이었다. 이것은 젊을 때부터의 공부나 학력엔 큰 관계가 없고, 나이가 들어 공부하고, 지적수준을 높이는 것이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이시형
동남신경정신과 원장

실제로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익혀 보라. 아, 그렇구나! 잠잠하던 뇌가 확 깨어나는 느낌, 불이 반짝 켜

지는 기분은 누구나 가져 봤을 것이다. 순간 머리 속이 움찔 하는 상쾌함으로 넘친다. 이보다 더 신선한 자극이 없다. 배운 것을 해보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대뇌 중추가 밝고 활기찬 무드로 변한다. 이런 자극은 영화를 보는 스티리나 오락을 즐기는 재미와는 한 차원 다른 맛이고, 흥분이다. 이런 머리는 늙을 수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 봐도 교수나 연구가가 아니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팔순, 구순까지 젊고 쟁쟁하다.

머리에 적절한 지적자극을 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장수

공부를 해야 젊어지고 공부를 해야 장수한다. 그렇다고 학교 공부처럼 딱딱한 생각은 말기 바란다. 자기 직업과 관련이 있는 서적을 뒤적거리거나 지식강좌나 교양강좌도 좋다. 머리에 적절한 지적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요즈음은 어딜 가나 교양 강좌가 많이 열린다. 나도 연사로서 꽤나 바쁘다. 참 놀랄 일은 강연장의 인파에 놀란다. 그리고 메모를 하는 등 청중의 진지함에 또 놀란다. 제법 어려운 학술적 내용에도 청중의 태도로 보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신기하다. 그만큼 사람들의 지적수준도 높아졌으며 지적 욕구 또한 강하다. 물론 우리 국민의 전반적 교육수준도 높지만 그보다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다. 요즘 우리 주위에 젊고 건강한 노인이 많고 평균수명도 길어진 것은 생활수준이나 의료기술의 향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지적인 사회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뜨거운 학구적, 지적 분위기는 젊고 건강한 두뇌 개발에 큰 공헌

막상 걱정은 젊은 층이다. 웰빙족으로 자처하면서 지적자극보다 걸 모습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듯해서 아쉽다. 인간개발연구원의 뜨거운 학구적, 지적 분위기는 그것만으로 젊고 건강한 두뇌를 개발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웰빙이다. **人間**

CEO 독서아카데미

로마인이야기 리더십과정

기업 및 조직경영의 지침서로 애독되고 있는 <로마인이야기>를 통해 천년제국을 건설하여 번영을 유지한 로마인들의 지혜와 전략을 배우고, 아울러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인간, 조직, 국가경영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장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정 안내

과정명 <로마인이야기 리더십 코스>
개최: 인간개발연구원 매경인터넷 공동개최
대상: 교육대상 기업 및 공공기관 중견간부 이상

교육일정

국내교육 : 2004.2.17 ~ 2004. 3. 23 매주화요일 (총6회)
로마현지답사 : 2004.3.31 ~ 2004.4.5 (5박 6일)

교육비 (VAT 별도)

A과정 750,000원(국내교육)
B과정 3,250,000원(국내교육 + 로마현지답사)

교육장소 및 시간

A과정 은행연합회관 19:00 (1~5회), 파주출판문화단지 15:00 (6회)
B과정 로마 외(*세부일정 추후공지)

문의&신청 담당자

매경교육센터 권신 대리, 박재경 연구원
[Tel]: 02-2000-5446~5448
[Fax]: 02-2000-5445
[E-mail]: mkedu@mk.co.kr

Class Schedule

공 병 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2/17(화)19:00
천년제국 로마로부터 배우는 국가, 사회, 조직 경영과 번영의 노하우

강 영 철(풀무원 부사장)

2/24(화)19:00
로마제국의 국가운영, 정치,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배 동 만(제일기획 사장)

3/2(화)19:00
위기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로마인

박 원 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3/9(화)19:00
로마번영의 견인차, 노블리스 오블리제

양 병 무(인간개발연구원 원장)

3/16(화)19:00
오늘의 리더가 알아야 할 로마제국의 리더와 리더십

김 언 호(한길사 사장)

3/23(화)15:00 파주출판문화단지 한길사 사옥
나는 왜 로마인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것은 어떻게 독자와 사회를 변화시켰나

내 남편은 비교한다

작년에 들었던 자동차 보험과

제일화재 온라인 자동차 보험의 가격차가 얼마인지...

부부만 운전할 경우 한번 더 절약할 수 있는지...

부부한정특약 **-257,000원**

이동원씨(34세)부부:가입경력 신규/할인할증 100%/2008년식 SM3 1.5 / 부부한정특약

직거래 할인은 되는지, 전국적인 보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 24시간 신속한 긴급 출동 서비스가 가능한지, 오랜 경험의 서비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남편의 비교 덕분에 우리 부부는 257,000원 절약했다

1인 특약 혼자만 보험혜택을 한정할 경우 **최고 28% 추가할인**(임의담보기준) **형제 자매 특약** (가족+형제자매) 한정으로 **최고 10% 추가할인**(임의담보기준)



1588-8282

www.ifirst.co.kr

제일화재 온라인 자동차보험